

하나미국테크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 DU908]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테크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손익과 연동되는 **재간접투자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국가위험**,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분산투자 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이 높은 **집중투자위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미국테크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
| | 구분 | 주요내용 |
| | 모투자신탁 명칭 | 하나미국테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 투자대상 외국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필요성 및 선정 기준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JPMorgan Funds-US Technology Fund"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내 소재하거나 주요 경제활동을 미국 내에서 영위하는 기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선정기준은 역외펀드 집합투자업자의 글로벌주식 운용경험과 운용업력,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설정규모, 운용지표(변동성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25.48%, 1등급의 매우높은위험등급(2021.6.30기준) 금융감독원 역외펀드 등록기준) 및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

| 구분 | 주요내용 |
|---|---|
|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 | JPMorgan Funds-US Technology Fund |
| 집합투자업자 | J. 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해당 펀드는 JPMorgan Funds의 하위펀드로서 JPMorgan Funds의 집합투자업자는 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이며, 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는 본 펀드(JPMorgan Funds-US Technology Fund)의 운용업무를 J. 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에게 위탁하였음) |
| 설정국가 | 룩셈부르크 |
| 감독기관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 |
| 회계감사 실시대상 여부 | 회계연도(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 종료시 회계감사 실시 |
| 설정일 | 1997년 12월 5일 |
| 설정규모 | 8.61(USD in Billions) (2025년 06월말 기준) |
| 종류 | 증권(주식형) |
| 주요투자대상 | 미국 내 소재하거나 주요 경제활동을 미국 내에서 영위하는 기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 |
| 주요 투자전략 | <p>투자목표</p> <p>주로 기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한 미국 법인들에 대하여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달성합니다</p> <p>투자프로세스</p> <p>1)투자접근법 - 펀더멘털, Bottom-up 주식 선정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 기술 분야에서의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p> <p>2)벤치마크 - Russell 1000 Equal Weight Technology Index(Total Return Net)</p> <p>3) 벤치마크의 용도 및 유사성 - 투자결과 비교 - 본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으로 운용됩니다. 대부분의 투자(파생상품 제외)는 벤치마크와 구성이 같을 가능성이 크지만, 집합투자업자는 증권, 비중, 리스크 성격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리스크 성격이 벤치마크의 그것과 유사한 정도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성과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p>정책</p> <p>주요투자 대상 : 자산의 최소 67%가 기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 내 소재하거나 주요 경제활동을 미국 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됩니다.</p> <p>기타 투자 익스포져: 캐나다 법인</p> |
| 투자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JPMorgan Funds-US Technology Fund")에 대한 투자비중: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 2022.04.21).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지수: **Russell 1000 Equal Weight Technology Index x 95% + Call x 5%**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단순한 수익률 비교 등의 목적으로 [Russell 1000 Equal Weight Technology Index x 95% + Call x 5%]를 참조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지수인 [Russell 1000 Equal Weight Technology Index]는 FTSE Russell에서 산출하는 동일 가중 섹터 지수로서, FTSE Russell에서 사용하는 ICB(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 분류기준에 따라 테크놀로지 산업내의 종목들을 동일비중으로 구성하여 성과를 반영합니다. 종목별 비중은 분기별로 재조정됩니다. 지수는 인덱스 펀드 등의 개발 및 성과 추종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지표의 성과 등은 FTSE Russell 홈페이지 (www.ftserussel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참조지수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참조지수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를 위해 운용보고서를 정기적(월간)으로 수령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위험 관리를 실행합니다.
 - 펀드 성과: 절대 성과, 상대 성과, 기간별 성과 등
 - 포트폴리오 분석: 알파, 베타, 변동성, Sharpe ratio 등
 -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 보유 상위 종목, 시가 총액별 투자비중 및 섹터별 투자 비중 등
-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추가적인 운용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운용사에 요청하여 펀드의 성과 하락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합니다.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헤지비율: 외화표시자산(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90%** 수준]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2025년 07월 17일 기준)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납입금액 의 1.00% | 1.050 | 0.650 | 0.85 | 1.849 | 288 | 485 | 691 | 1,136 | 2,459 |

| | | | | | | | | | | |
|---------------------------|----------------|-------|-------|------|-------|-----|-----|-----|-------|-------|
| | 이내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 | 없음 | 1.400 | 1.000 | 1.21 | 2.197 | 225 | 462 | 710 | 1,244 | 2,832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0% 이내 | 0.725 | 0.325 | 0.57 | 1.531 | 206 | 370 | 542 | 912 | 2,013 |
|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 없음 | 0.900 | 0.500 | 0.74 | 1.703 | 175 | 358 | 550 | 965 | 2,195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C-P) | 없음 | 0.950 | 0.550 | - | 1.750 | 179 | 368 | 565 | 991 | 2,25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없음 | 0.850 | 0.450 | - | 1.650 | 169 | 347 | 533 | 934 | 2,127 |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비율(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 총보수·비용 비율인 연 0.78%를 추정치로 사용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기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약 연 0.78%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 [약3년]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5년 07월 17일 기준)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2024/07/18 ~ 2025/07/17 | 2023/07/18 ~ 2025/07/17 | 2022/07/18 ~ 2025/07/17 | 2020/07/18 ~ 2025/07/17 | |
| 펀드ClassA | 2022-12-05 | 12.47 | 18.75 | | | 24.65 |
| 수익률 변동성(%) | 2022-12-05 | 25.58 | 23.24 | | | 22.53 |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A-E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5년 07월 16일 기준)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_해외,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집합투자 기구수(개)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 박수범 | 1985 | 부장 | 6 | 131 | - | - | 9.18 | 5.72 | 14.4년 |

| | | | | | | | | | | | |
|-------------|--|--|------|----|---|-----|---|---|------|------|------|
| | 책임 | 장수현 | 1992 | 과장 | 5 | 120 | - | - | 9.18 | 5.72 | 3.3년 |
| | <p>*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적을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적은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p> |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 |
| 주요투자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 | | | | | |
| | 재간접투자 위험 |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하나의 외국 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손익과 연동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 | | | | | | |
| | 집중투자 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기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된 테크 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테크 섹터 주식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 주식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전체 시장의 성과와도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국가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지역)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투자대상국가(지역)의 정부정책 및 제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자신탁재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투자는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 환율변동 위험 |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 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헤지 시행 수준으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환율변동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및 투자대상국가 및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적인 제반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 |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에 따른 보호 조치와 다르거나 아예 해당 보호 조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설립지 국가의 급격한 정치, 사회 및 경제 상황 변화 또는 유럽공동체규정의 변경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전략 등에 반하는 설립지 국가의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조세 제도 포함), 유럽 공동체 규정의 변경에 따른 투자제한사항의 변경 등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 | 외국 운용사 관련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매입 방법 | ·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 방법 | · 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 제8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제5영업일 기준가 제9영업일 지급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기준가 |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 |
|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 |

| | <p>-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수익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 | |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 | | | | | | | | | | | | | |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1좌단위 모집) | | | | | | | | | | | | | | | |
| 효력발생(예정)일 | 2025년 07월 31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tr><td>온라인슈퍼</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td></tr></table> |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판매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판매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온라인슈퍼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 | | | |
| | 판매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판매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 | | | | | | | | |
| 온라인슈퍼 |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S) |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기관(F) | 기관 및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고액(I) |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